

자연과의 교감 속에 생명을 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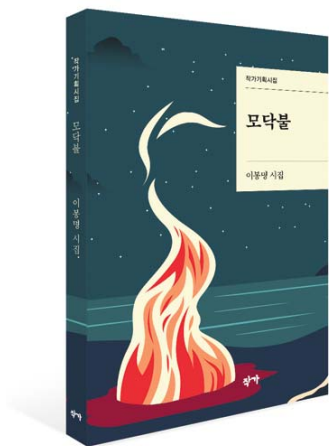
무주 출신 이봉명 시인 새 시집 '모닥불' 출간

무주 적상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시를 쓰는 이봉명 시인이 새 시집 '모닥불'을 작가 기획 시집으로 출간했다.

이번에 펴낸 이봉명의 시집 '모닥불'은 모두 4부로 나누어져 총 47편의 가편을 수록했다. 산동네, 농사꾼, 갈수록 인적이 끊어지는 적막감이 시의 발화점이지만 사람의 체온을 간직한 그의 시편은 '진대근한' 생명력을 가졌다.

문명적 회로에 감겨 시행의 앞뒤 문맥을 고 의로 훼손하는 요즘 시들과 분명한 거리를 두고 시의 새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시어들과 시 속의 행위가 맞물려서 새 형상을 얻는 메타언어의 면모는 한국시의 미래를 보여줌에 손색이 없다.

도중환 시인은 "이봉명은 땃국을 주르르 흐르는 옥수수 파는 아낙의 얼굴에서 송아지 눈망울같이 맑은 눈을 보는 시인이다. 그걸 보는 게 시인의 눈이다. 쉼대가 타는 모닥불에서 쌀알처럼 반짝이는 별을 보는 시인이다. 여름 저



녁 찬 밥을 받아 먹고 잠들어도 별빛이 개펄벌레로 날아다니는 꿈을 꾸는 시인이다"고 말했다.

복고극 시인은 "이봉명 시인의 시엔 현대문명에 훼손되지 않은 근대 이전 농촌 사회의 장삼이사들의 풍속화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백석이 그려냈던 그 모닥불처럼 토속적 정서가 무주 적상산 아래 공벽한 마을을 배경으로 시에 되살아난다. 그러나 백석과 다른 점, 지금 이 풍요로움이 거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한다"고 언급한다.

한편, 1956년 전북 무주 출생인 이봉명 시인은 1991년 '시의 의식'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꽃밭에 대한 명상', '아주 오래된 내 마음 속의 계절', '포내리 겨울', '지상의 빈 의자', '지상을 날아가는 소리', '비림의 뿌리', '가물막', '자작나무 숲에서', '검은 문고리에 빛나는 시간', 산문집 '겨울엽서' 등을 펴냈다.

그의 시집 '모닥불'을 펼쳐 문명적 삶의 아류가 아니라 사람다움의 행위를 둘러싼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생명을 얻는 순정환 시의 결을 만나보는 것이 아닐까? /무주=전문선 기자



'전국 유일' 일일선 어린이 논술대회, 9일 전주교대서

초등 3학년생 이상 참여 가능

일일선인성운동본부(이사장 곡인숙)가 오는 9일 오후 1시 전주교육대학교 학생관에서 '제13회 전북특별자치도 일일선 어린이 논술대회'를 연다.

올해로 열 세번째를 맞는 전북자치도 일일선 어린이 논술대회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바른 인성 육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봉사단체인 일일선인성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전국적으로 드문 초등학생 논술대회로써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일일선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바른 인성을 길러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까지 매년 열리

고 있다.

이번 논술대회는 초등학교 3학년생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참가비는 없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일까지로, 일일선인성운동본부(010-2450-9639)로 학교명, 학년, 반, 성명, 본인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 문자로 신청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남원 농악, 일본서 환호성 | 남원시립농악단, 미야마 크래프트워크 축제 참가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립농악단이 우호 교류 도시인 일본 히오키시의 초청으로, 단원 9명이 '제5회 미야마 크래프트워크' 축제 공연에서 역동적인 남원 농악의 진수를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

농악단은 지난 2일 오전 11시와 오후 14시에 일본 제5회 미야마 크래프트워크 축제에서 사물놀이, 죽방울, 12발 상모 등 화려하고 역동적인 공연을 펼쳐 구경하는 일본 현지 관객들의 열린 환호성이 공연장에 울려 퍼졌다.

미야마 크래프트워크 축제는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본 히오키시 히가이치키지정 미야마 일대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1986년부터 이어져 온 미야마 가마모토 마쓰리 2020년 미야마 크래프트워크로 새롭게 태어난 행사이며, 미야마에서 제작되는 수공예품, 독특한 분위기의 음식점, 마을풍경 등 미야마의 다양한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벤트로 탈바꿈한 축제이다.

시 관계자는 "15대 심수관 선생과 심수관요관람 및 히오키시청을 방문해 히오키시 시장 환담, 환영 만찬, 남원 농악공연 등 2박 3일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예술성을 자랑하는 남원시립농악단과 함께해서 더욱 자부심을 가졌다"고 전했다.

한편 김경숙 남원시 문화예술과장은 "시립농



남원시립농악단이 우호 교류 도시인 일본 히오키시의 초청으로, 단원 9명이 '제5회 미야마 크래프트워크' 축제 공연에서 역동적인 남원 농악의 진수를 선보였다. (사진=남원시청 제공)

악단의 공연이 히오키시에 계신 도민뿐만 아니라 교민들에게 K-컬처 및 남원 농악의 진수를 선보이며, 교향에 대한 그리움, 애환과 깊

은 감동 선사로 고국에 대한 마음을 다스림 일깨워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지난 2일 유학생과 함께하는 전통 문화 체험 행사인 '유학생, 전통문화와 어우러지다'를 성황리에 마쳤다.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한국의 전통문화체험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유학생, 전통문화와 어우러지다' 성료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지난 2일 유학생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행사인 '유학생, 전통문화와 어우러지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과 한옥마을 일대에서 유학생들이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20여 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유학생 체험단은 오전에 한복 체험을 진행한 뒤, 전주향교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인사 예절 등을 익혔다. 오후에는 한복을 입고 '경기전'에 둘러 태조 어진의 역사, 제작 방법 등 배웠다. 또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에서는 명장들이 진행하는 국

악 강연을 보고 '이리랑'을 따라 불렀으며, 전통 부채에 자신이 좋아하는 글귀를 선정해 직접 쓰는 체험을 했다.

행사에 참여한 베트남 유학생인 주안 학생은 "한국 문화를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는데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것 같다"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며,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서정화 센터장은 "작년에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베트남 유학생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니 느낌이 남달랐다"고 전했다. /잠은성 기자

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함께하는 예술기행' 2차 참여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의 예술인복지증진센터는 '2024 함께하는 예술기행'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 함께하는 예술기행'은 재단 '예술인역량강화 재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예술인들이 선진사례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창작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참여자는 5일부터 선착순으로 25명을 모집한다. 도내 주소를 두고 있고, 예술활동 경력에 있는 예술인이면 참여 가능하다.

다만, 2024년도 상반기 함께하는 예술기행에 참여한 예술인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예술인은 '2024 함께하는 예술기행'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12월 11일 서울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과 리움미술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접수방법은 재단 누리집(www.jct.or.kr) 사업 공고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jart2024@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세제내 내용은 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잠은성 기자



김한태문학관 2층 로비에서 '햇살 따사로운 가을뜨락 시화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시화전은 오는 9일까지 열린다. (사진=무주군청 제공)

무주의 가을 정취, 시와 그림으로 표현

김한태문학관 2층 로비서 '햇살 따사로운 가을뜨락 시화전' 개최미술관 2층서 '동방일사 송병선과 무계구곡' 탁본 전시회

무주군은 오는 9일까지 김한태문학관 2층 로비에서 '햇살 따사로운 가을뜨락 시화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문인협회 무주지부(회장 이연희)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가을 무주의 정취를 시화 작품으로 나눈다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이연희 회장의 '동나무 그늘'을 비롯한 회원(40명)들의 작품 28점을 두루마리 족자로 만나 볼 수 있다.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는 10일까지 '동방일사 송병선과 무계구곡' 탁본 전시회도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무주군청 서벽정과 무계구곡의 역사·문화·관광학적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취지에서 무주문화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무주 지역에 남아있는 선현들의 자취를 탁본과 사진으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무주구룡동 서벽정 주변 무계구곡(은구암, 와룡담, 학소대, 일사대, 함벽소, 가의암, 추월암, 만조담, 파회) 암자서 탁본과 명소 사진 등 30여 점의 전시된다. 5일 오후 2시에는 개관식이 열린다.

무주군청 태권문화과 박규규 과장은 "자연특별시 무주의 가을 정취를 아름다운 시와 그림, 그리고 시간의 경계를 넘어 공존의 심비를 경험하게 하는 탁본과 함께 느껴보시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전시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지역문화로 주민 화합 이끌다

'제2회 진안문화원의 날' 행사 성료 공연·체험행사, 시상식 등 진행

진안문화원(원장 우덕희)은 지난 1일 진안문화원의 집에서 진안 지역문화의 고유원형을 발굴·보존하며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화합을 위한 '제2회 진안문화원의 날' 행사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이 날 행사에는 한병태 전북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장, 전북 시군 문화원장과 임·직원,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및 의원, 수상자 등 문화원 가족 100여명이 함께 했다.

오후 2시에 '동해' 식전 공연에 이어 기념사 및 축사, 시상식 등 기념식으로 진행됐으며, 문화원의 날 기념 시상에는 진안군 문화발전에 기여한 진안문화원 김철수 회원이 진안군수상, 진안문화원 전현만 회원이 진안군의회 의장상, 전문문화육성 발전에 기여한 박원순 강사가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유중구 이사가 전북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장상, 진안문화원 박순열 회원이 진안문화원장상 수여했다.

또한 쿨다지예술단과 한마음합창단&서운의 축하공연과 함께 반려식물 키우기, 마이산도자기 꾸미기, 한지과판 만들기, 진안고원 차 만들기 등 체험을 진행했다.

특히 2인조 마음자리 버스킹은 관객들의 호

응을 이끌어내고 박수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문화원은 진안문화원의 날 기념하여 지난날 28일부터 오는 8일까지 문화홀에서 서예, 서각, 도예 등의 작품 등을 전시해 오고 있다.

우덕희 원장은 "진안은 우리의 소박한 정과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심이 자랑할 만한 고장으로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오랜 세월 속에 이어온 문화적 유산은 우리의 삶의 뿌리이며,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며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며, 진안문화원 회원님들과 진안군 내의 주민들이 함께 진안의 미래를 문화적으로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 진안의 인성, 흥과 다양한 문화 유산 등 우리의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문화원에서 계승 발전시켜 왔고, 진안의 수 많은 자랑거리가 존재한다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회원님들이 진안의 역사이기에 이제는 진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모든 군민이 지역 어디든 차별 없이 공정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진안문화원과 행정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